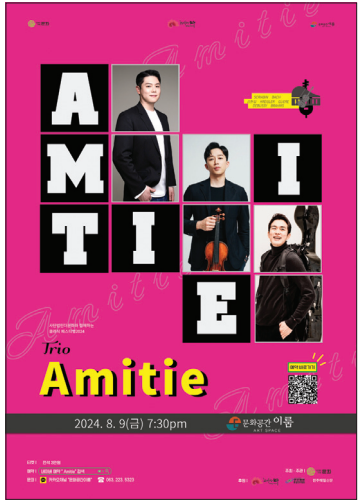


Trio Amitie가 꾸미는 한여름 밤 콘서트

전주 문화공간이름서 8월 9일 클래식페스티벌 개최

오는 8월 9일 저녁 7시 30분, 전주 문화공간이름서에서 사단법인더문화와 문화공간이름의 공동 주최로 클래식페스티벌2024가 Trio Amitie 초청 공연으로 열린다. 일상의 피로와 더위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아미피에의 클래식 연주를 통하여 더위를 잊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선사 할 예정이다. 이번 클래식 페스티벌2024에 초청된 트리오 아미피에(Trio Amitie)는 작년 '다시, 전주' 콘서트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애틀 요청이 쇄도하여 이번 '사단법인더문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4'에서 다시 한번 초청해 작년과 같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무대를 구성했다고 한다.



Trio Amitie 초청 공연 포스터

이날 공연에서 A. Scriabin의 Prelude and Nocturne D flat Major For Left Hand Op.9과 C. Debussy의 Piano Trio G Major 3rd mov. Andante espressivo와 김현섭의 아리랑 연곡과 J. Brahms의 Piano Trio No.1 B Major, Op.8 1st mov. Allegro con trio 등 트리오 아미피에 팀의 슬로 연주 및 윌렛, 트리오 연주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트리오 아미피에(Trio Amitie)는 현재 국내외에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젊은 팀으로 오직 음악을 통해서만 가능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고자 한다. 아미피에(Amitie)는 프랑스어로 '우정'이라는 의미이며,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박상욱이 의기투합하여 음악적 우정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트리오 아미피에의 리더인 피아니스트 박

상욱은 신박듀오로 이미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핫한 아티스트이며 전주에서도 여러 번 초청되어 전주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국제 콩쿠르에서의 입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에서의 박사 과정 졸업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수료,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의 공부를 통해 그의 피아노 연주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은 취리히 국립음대 학원 대학원을 거쳐 바이올린 분야에서 뛰어난

어린 성과를 내며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경력과 함께, 삼성 라이징 스타 시리즈 아티스트로서도 주목받았으며, 그의 연주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소중한 음악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첼리스트 이호찬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연주로 인천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뛰어난 연주 경력을 자랑하며 국내외에서 그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클래식 페스티벌 2024는 전주 시민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넘어, 길어지는 잠마와 더위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청량한 감동을 줄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사단법인더문화의 이윤정 예술감독은 이번 클래식 페스티벌 2024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을 전주에 다시 한번 초청함으로써 전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한층 더 풍성해지고,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켓은 전석 3만 원이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문화공간이름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공연 관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 문화공간이름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2025 우진청년미술상' 작가 선정

김누리 · 박경덕 작가, 내년 상반기 초대전 개최 · 500만원 수여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은 2025 우진청년미술상에 김누리(서양화), 박경덕(조소)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누리 작가



박경덕 작가

1-2명의 청년작가를 선발, 지금까지 모두 75명의 작가에게 초대전을 지원했다.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선발 방식을 2년에 한 번씩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내년 상반기에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2주간의 초대전을 개최하는 한편, 창작활동지원금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우진문화재단 관계자는 "우진청년미술상 지원에 준 17명의 작가와 심사위원회 감사드립니다"며 "2025년 우진청년미술상 초대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취약지역 10개 시·군 찾아가는 문화예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쑥'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쑥'을 통해 문화의 풍성함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술, 골골쑥'은 7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취약지역 10개 시·군을 찾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세부일정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10개 시군이 주최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재단, 도내 지역별 기초 수평기관이 함께 주관해 11월까지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문화 전담기관 '우뚝'

한국전통문화전당,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 공연 · 예술인지원사업 등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문화 전담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당에 따르면 일상 속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한지 · 한식 · 전통놀이 · 한복 · 수공예 체험 △지역작가 연계 전시 △문화 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연예술단체인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풍물마당놀이 해피 쇼에니메이션 판소리 북 콘서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등의 공연을 성

황리에 마무리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주 두레 연회, 기점동 △미디어 국악연회공연, 전주사계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의 무료 제공과 함께 운송 및 설치, 홍보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전당 내 입주공방과 △여름밤을 비추는 한지꽃등(금홍공예) △화다리 2단 서랍장(예담공예) △한지꽃 액자(지

아피) △더위 쬐는 민화 부채(홍우한문화연구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 만성동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축제 △세대를 잇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5년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작가 등과 협업을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경험의 기회 확대와 가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내달 1일 퓨전 국악 콘서트 '유희스카' 공연

고창군은 오는 8월 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퓨전 국악 콘서트 '유희스카' 공연이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스카'는 한국 스카음악의 대부 밴드 '킹스턴루디스카'와 우리나라의 전통연희 단체 '연희킵퍼니 유희'가 만나 결성한 팀이다. 2018년 여우라페스티벌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호주 '한민족축제' 초청공연, KBS 송가인쇼 공연, 정구 앨범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5명의 빅밴드이다.

자메이카 음악인 스카, 레게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낸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

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공연료는 무료이며 티켓 예매시 입장 가능하다.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ticket.gccac.kr), 현장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현장 예매 주말 제외)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공연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